



한국축산의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 주최로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는 국제화에 대응한 한국축산의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지난 14일 영남대학교 축산대학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 축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영남대학 조석진 교수가 “국제화 시대의 한국축산”, 축협중앙회 송찬원 부회장이 “국제화에 대응한 한우 및 육우” 일본 도쿄대학 가와시마 교수가 “국제화에 대비한 일본축우산업”, 축산시험장 이기종 과장이 “국제화에 대비한 한국낙농”,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 소장이 “국제화에 대응한 양계산업”, 다비육종 윤희중 사장이 “국제화에 대응한 양돈산업” 중국 연변농학원 이문용 교수가 “중국산업의 현재와 장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발표 2001년까지 5조4천7백억원 투입

농림수산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5조4천7백억원을 투입,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난 19일 확정·발표하였다.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주도의 공동출하 확대로 농가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소비지에서는 도매시장을 확대 건설하여 대량, 신속유통과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소매단계는 집배센터와 직판장을 통한 직거래를 확대 현행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92년부터 96년까지 농산물 1조5천억원, 축산물 3천억원, 수산물 1천1백억원, 가공 및 기타 사업 4천6백억원 등 2조3천7백억원이 투입된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3조1천억원을 추가투입하여 향후 10년간 총5조4천7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유가격 5.2% 인상 kg당 383원으로

정부는 원유가격을 유지방울 3.4% 기준으로 현행 kg당 364원에서 383원으로 5.2% 인상,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원유가격은 지난 89년 4월 조정된 것으로 그동안 배합사료가격은 안정되어 있으나 노임이 31.5%, 자재비가 19.5% 인상되어 5.2%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원유가격은 유지방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92년 중에 원유의 위생규격에 의한 차등가격제를 실시,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물가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1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돈육 수출업체에 원료돈육 직수입 허용 수출금액 범위내에서 가격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수출규격돈 생산체계를 확립한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금액 범위에서 육가공원료 직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업체가 22개에서 8개 업체로 줄고, 수출량도 금년 4월까지 1,204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39%에 머물고 있어 가공원료의 부족현상을 해소, 수출에 따른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실시된다. 반면 육가공원료로 수입된 돼지고기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일반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번 돼지고기 수입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91년 가격안정대 상한선인 90kg 당 14만5천원 이하로 안정되면 수입을 중단한다.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춘계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김순재)는 지난 6월 14일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제27회 춘계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간 동학회는 수의공중보건학회 학술발전과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관련분야의 학술 교류와 산학협동을 도모해 왔는데 이번 학술심포

지엄도 축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축산배설물 처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집약되었다.

심포지엄 발표내용은 ▲축산 배설물 처리제도와 문제점(이유원과장), ▲축산 배설물 관리현황(유재일과장), ▲계분처리와 이용(데이찌 호리우찌 오사카대학 교수), ▲축산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 이용현황과 문제점(오태광박사)이었다.

특히 계분의 처리와 이용에 대한 일본 오사카 부립대 교수인 데이찌 호리우찌씨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분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리·발표하여 양계관련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관련기사 본문 ○○페이지 게재)

축산업 종사자 광역의회 90명 당선

축산업 종사자의 광역의회 당선자가 90명으로 전체 의원수 866명중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로는 민자당 55명, 신민당 17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4명이다.

특히 축산인들은 농촌지역에서 당선됨에 따라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도의회에서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제도권 내에서 축산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시책 수립과 시행에 축산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선자들은 전국적으로 농축산인 대표 의원들이 연대 농어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UR농산물협상과 식품산업의 대응전략 심포지엄 개최

한국 식품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6월11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올림픽 유스호텔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UR농산물협상으로 국내의 농축산업이 수세에 놓인 가운데 농축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재욱 박사의 「UR농산물협상의 최근동향과 전망」, ▲윤석인 연구원의 「UR농산물협상이 국내식품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전재근 교수의 「UR대응을 위한 전통식품의 가공기술개발 방향」, ▲신현경 실장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강수기 실장의 「농민의 농산물가공업 참여확대 방안」, ▲종합토의 순으로 발표가 있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500호 기념으로



한국농어민신문사와 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가 주최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6월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축산분뇨정책의 재고(오인환교수), △축산분뇨관리의 현황과 대책(김옥경과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편 양계분야에는 본회 최준구 부회장(채란)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돈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 장기간 장마로 다발 우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일 돈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출하도축 돼지의 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상당수가 항체음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지역에서 돈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장마가 조기에 시작 장기간 지속된다는 기상대 예보와 관련하여 장마철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외부환경에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돈콜레라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며 자돈을 구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농가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돈업 허가상한선 완화 검토 양돈농가 생존권 박탈 처사라 반발

정부는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와 사육두수 제한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검토를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돼지가격이 90kg 기준 18만5천원까지 상승, 물가안정과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허가상한선을 모돈 1천두에서 2천두까지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입개방을 앞두고 탈농이 속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벌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양돈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양돈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허가상한선 확대 조정은 절대 반대하며 정부가 전업양돈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획기

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사 1천평까지 신고로 전용가능 7월부터 시행

농지를 축사로 전용할 경우 7월부터 1천평(3,300m²)까지 신고로만 가능하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7월중 대통령의 재가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로만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될 면적과 시설대상은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은 450평에서 1천평으로 △농가에서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은 1천평 △농가에서 설치하는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450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 농어민이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공동편의시설 등은 9백평까지 가능하다.

천안양계조합, 대전·충남양계협동조합 으로 명칭 변경 및 사업 확대

천안양계조합(조합장 김경렬)은 지난 6월1일부터 대전·충남양계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천안시, 온양시, 천안군, 아산군, 연기군 2시3군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업구역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 충남양계협동조합은 14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하루 40만개의 계란을 수집, 판매하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독성과 신설 초대과장에 박종명 박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근식)은 축

산물의 안전성을 연구하게 될 잔류독성과를 신설하였다.

잔류독성과의 신설로 농축산물 수입의 간접적 통제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동물약품과 배합사료 등의 안전사용 연구를 통해 안전성 높은 축산물 생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대과장에는 박종명 박사가 발령되었다. 박종명 과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73년부터 수의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해온 배태량이다.

제8차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개최 새회장엔 박근식 소장 선출



△박근식 회장

한국가금학회 제 8 차 정기총회가 지난 6월29일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 기간중에 열린 제 8 차 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회장에는 박근식(가위연)소장, 부회장에 신흥종 회장, 김춘수교수, 박영인회장, 정선부과장, 한성욱교수(이상 5명 유임), 김상희과장(신임)이, 감사에는 본회 이규성전무, 전남대 김재홍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한국가금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이광초, 유창우, 서울인티(주), 이미애씨에게 감사패를, 이규호, 지규만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또한 남두희, 이병현, 조성구, 김인호, 유동준, 송영철, 이광초, 오기석, 유창우씨에게는 종신회원패를 전달하였으며, 92년회계년도 사업계획으로 △학회지발간, △'91추계심포지엄개최 및 양계산업박람회전학, WPSA/FE전·현임 회장단 회의개최, △'92추계 심포지엄 개최, △제 9 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 등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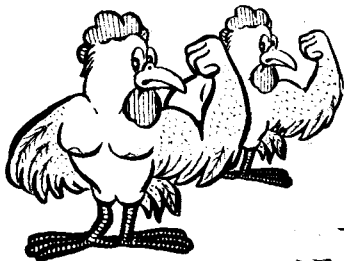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 개최 제주시험장, 제주대에서

한국 축산분야 학회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한국축산분야 학회 협의회(회

장 배대식)가 주최한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가 한국금학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및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열렸다.

UR대비 제주축산발전방향 심포지엄과 각 분야별 학술발표회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양계분야에는 「백색레그혼종 순종계의 선발에 의한 유전적 개량량 추정에 관한 연구」외에 많은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노계유통 전문업체

유림유통은 각 식품회사 지정업체로서 수시로 도태하는 각종 노계를 수량불문 구입하겠으니 연락주시면 최고의 시세와 신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귀 농장의 무궁한 번영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계유통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유림유통

이인석 드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5-3 두손B/D(2F)

TEL: (02) 578-1130, 1131

FAX: (02) 578-5449